

**무안국제공항 개항 관련
발 표 문**

2007. 11. 1 (목)

 **건 설 교 통 부**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도민 여러분!

무안국제공항이 이달 8일에 문을 엽니다.

오늘 저는 새로 개항하는 무안국제공항으로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전남 지역의 축제행사가 되어야 할 무안국제공항의 개항이 일부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지역내에서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무안국제공항의 건설경위 】

1993년에 발생한 목포공항의 항공기 추락사고 이후 새로운 공항건설에 대한 계속된 지역의 요구에 따라 1994년 무안을 후보지로 확정하고, 1999년에 건설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계획을 세운지 13년, 착공에 들어간지 8년 만에 대역사(役事)를 마무리 짓고, 세계를 향한 광주·전남의 미래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응비의 나래를 펼치게 된 것입니다.

개항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건설과정에서 부족한 재정여건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컸으며, 2004년에는 감사원에서 항공수요와 경제성을 재검토하여 개항시기와 사업 규모 등을 조정토록 함에 따라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정부는 광주·전남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안국제공항의 적기 개항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 광주·전남지역 국제관문공항의 필요성 】

광주·전남지역 주민 여러분!

지금, 서남권에서는 무안기업도시, 영암·해남 레저 기업도시와 나주혁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2008년 세계한상대회와 2009년 광엑스포,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많은 국제 행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사업과 국제행사는 세계 각지에서 오고 가는 사람과 화물을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국제공항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공항은 준공항의 일부 시설을 민항기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선 증편이 어려우며, 필요한 때에 마음대로 항공기가 운항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여 국제공항으로도 지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가 도착할 때마다 세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공항주변에서는 준용기의 소음 등으로 공항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주공항의 사정 등으로 현재 운항되고 있는 국제선도 중국 상해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이외의 나라를 오고 갈 때에는 인천 국제공항을 거쳐야 하므로 매우 불편한 여행길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늘어나는 서남권의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주민들의 해외여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세계적 면모를 갖춘 국제공항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무안국제공항은 광주·전남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남권의 국제 관문 공항입니다.

【 광주공항의 국제선 이전에 대한 추진경과 】

일부에서는 광주공항 국제선의 이전을 정부가 갑작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무안국제공항은 1990년대 초 건설계획 단계부터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되었고,

7년전인 2000.12.30일 고시된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서도 무안국제공항 개항과 동시에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은 폐쇄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1.24일 고시된 제3차 「공항개발
증장기 계획」에서도 광주공항의 국제선은 무안
국제공항 개항과 동시에 이전하되, 국내선은 향후
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항개발 증장기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와의 사전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된 것입니다.

【 광주지역의 의견수렴 】

10여년 전부터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무안공항 개항
시에 이전하기로 약속되었음에도,
개항을 눈앞에 둔 시점에 광주지역 일부에서 무안
국제공항의 개항 연기 또는 광주공항에서 운항중인
국제선 존치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매우
당혹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교통부는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광주·전남의 상생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
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광주시장, 전남지사,

광주지역 국회의원, 광주시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해 왔습니다.

【 광주공항의 국제선 이전에 대한 정부 방침 】

정부는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광주시의 발전, 시민들의 해외여행 편의증진과 국제선 이전에 따른 단기적 수요 감소 우려와 시민들의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서남권의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안국제공항의 건설 취지에 맞게 “광주공항의 국제선은 개항과 함께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는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광주공항의 국제선 이전 문제는 정부가 이미 10여년에 걸쳐 약속해 온 사항인데, 개항을 며칠 앞두고 이를 바꾼다면 아무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부방침을 믿고 그동안 준비해 온 분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광주공항에서 이미 취항하고 있는 국제노선에 한해서는 무안~광주공항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는 시점까지는 해당 항공사가 광주공항에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에 잔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설 또는 증편되는 경우는 무안 국제공항을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광주공항에 잔류하고자 하는 항공사는 11월 3일까지 잔류를 희망하는 사업계획 변경서를 건설교통부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처럼, 항공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한 것은 국제선 이전에 따른 지역 관광업계의 항공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항공수요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항공사에게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일부구간이 미개통된 상황에서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이전에 따른 광주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불편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공항의 기존 국제선 존치는 무안~광주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국제공항의 이원화는 크고 길게 보면 광주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광주공항의 국제선 이전 없이는 무안국제공항이 거점 공항이 될 수 없으며,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 모두 준소공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광주의 큰 미래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공항 운영에 필수적인 출입국, 통관 등 CIQ 시설을 이중으로 배치해야 하므로 예산과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국제선이 이원화될 경우 보안 검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도시에 국제공항을 두 개나 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 광주공항의 국내선에 대한 정부 방침 】

광주공항 국내선은 현재와 같이 운영될 것입니다. 향후 무안~광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와 광주시민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여 운영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광주시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고통을 안겨 주었던 광주 군공항의 이전 문제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무안국제공항 육성방안 】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이 하루빨리 서남권의 관문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나주~광주간 고속도로의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안국제공항까지 추가 소요시간이 25분 내외로 줄어듭니다.

아울러, 전남의 동부 및 북부권에서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외버스 노선과 공항리무진 버스를 대폭 확충토록 하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주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공항 주차장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개항과 함께 개통되는 무안~나주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전 이남 지역 여객과 화물의 무안국제공항 이용을 촉진하도록 호남고속철도가 무안지역을 경유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계 각국의 항공사가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도록 무안국제공항을 제주국제공항 수준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 되면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지 않고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바로 동남아는 물론이고 미주, 유럽 등 세계 각지를 편리하게 오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공항은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 운영되나, 무안국제공항은 24시간 빈틈없이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B 747급 대형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활주로도 조기에 연장 하겠습니다.

셋째, 새롭게 취항하는 항공사에 대하여는 공항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겠습니다. 또한, 평균 탑승율이 손익분기점에 미달하는 경우 항공사 손실액의 일부를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여행업계의 관광객 모집도 지원하겠습니다. 전남도에서는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사에 대하여 관광객 규모에 따라 5백만원에서 7백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단체 관광 유치의 경우에는 숙박비와 차량임차비 등을 지원하고, 여행사의 관광상품에 대한 홍보비용도 지원합니다.

【 마무리 말씀 】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과거 국가간의 경쟁체제에서 도시간 경쟁체제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 국제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도시간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한국과 모로코가 아닌, 여수와 탕헤르가 주도적으로 도시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도시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넓고 긴 안목에서 미래의 큰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에 가까운 김포공항이 있지만, 동북아 허브 공항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의 큰 비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개항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더 큰 이익과 미래를 위해 오고 가는데 따른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국가의 비전이라면, 이제 무안국제공항은 광주와 전남의 미래이며 비전입니다.

광주시가 국제적으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아 외국인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을 광주·전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광주시민 여러분이 그동안 광주공항의 발전을 위해 쏟은 노력과 열정을 앞으로 무안국제공항에 기울여 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발전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와 전남은 함께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할 공동운명체입니다.

정부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해외 여행편의를 위해 유연한 자세로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여러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많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